

# 무안 친환경농업단지 5850ha로 늘린다

## 군, 울 28억 6600만원 투입... 안전식품 공급기지 구축

무안군은 올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면적을 확대, 안전식품 공급기지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간다. 무안군은 친환경 인증면적을 지난해 말 기준 경지면적의 18.6%인 3641ha(유기농 246·무농약 3395ha)에서 올해 30% 수준인 5850ha(유기

농 1750·무농약 4100ha)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28억6600만원을 들여 친환경농업 집단단지 3000ha를 지원하고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 생산장려금 지원 ▲잔류농약 분석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무안을 등 9개 읍·면 순회하면서 친환경 농업단지 대표, 친환경 인증 농가,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농가, 농협 관계자, 면·담당 공무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품질관리 및 인증기준 준수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 성공사례 등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 ‘황도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 실천기반을 확고히 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와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비타민 풍부한 완도 염장미역 손질 현장. 완도군 완도를 완도 농공단지 내에 한 미역공장 직원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염장미역을 담고 있다. 완도미역은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과 어린이 성장발육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 제공>

## 목포항 입구에 배모양 '형제 등대' 세운다

높이 20.1m 콘크리트 구조. 목포항 입구에 배 모양의 '형제 등대'가 건립된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2003년 건립된 선박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목포구 등대 바로 맞은 편 1.8km 해상 암초에 똑같은 모양의 등대(조감도)를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8일 공사에 들어갈 이 등대는 20여 년째 자리를 지킨 외달도에서 해상 200m 부근의 암초 끝에 오는 8월까지 설치된다. 돌진하는 배 모양의 이 등대가 완

공대 밀물때 등대밑 부분이 물에 잠기면 선박이 출항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명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 등대인 목포구 등대와는 달리 무인 등대다. 기초부에서 등탑까지 높이 20.1m의 콘크리트 구조다. 먼저 들어선 목포구 등대는 36m로 더 크고 웅장하다. 나성진 표지담당은 “이 등대가 건립되면 형제 등대가 사이좋게 입·출항 선박을 맞이해 주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신안 '천사섬 생명의 숲' 가꾸기 박차

군- 산림조합 업무 협약. 신안군과 신안군 산림조합이 손을 잡고 '생명의 숲' 가꾸기 등 녹색 산림자원 확대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매시장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관내 양질의 임야를 포함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황권순 신안군 산림조합장은 최근 영산회의실에서 '천사섬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안군 산림조합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2회 이상 유찰된 관내 임야를 포함한 토지에 대해 토지 매입대금과 취득세·수수료 등 제반경비를 자체 부담하여

먼저 취득하게 된다. 신안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신안군 산림조합의 제반 매수비용과 토지매입 대금의 5%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가산 지급해 신안군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법원경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안군 임야 경매는 160건에 달하며, 낙찰가율은 일반 감정가의 35~45% 정도에 불과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활용가치가 높고 접근성이 양호한 임야를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필요로써 천사섬 공원과화과 치유·생태환경의 '생명의 숲'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 해남 김 고급화 선언 지리적표시등록 추진

해남군이 겨울배추(제 11호)와 고구마(제 42호)에 이어 해남 김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한다. 해남군은 지난 20일 지역 대표 특산물인 김의 지식재산 관리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리적 표시' 등록과 단체표장 등록에 대한 내용과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남대에 의뢰한 해남 김의 성분분석결과와 '글루탐산'과 '알린' 등 유리 아미노산이 풍부해 김 특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으며, 단백질 함량 또한 43.9%로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새 얼굴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

**김충현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계통 농협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지역민이 함께 상생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충현(50)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은 “한·미 FTA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우리 농업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소득창출과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농협 본

연의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광 대마 출신인 김 지부장은 광주상고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후 복속천지점장, 순천 중앙지점장, 동광주 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 전주시내버스 또 파업 하나

노조 임단협 협상 중단 선언... 내달 파업 여부 결정. 지난해 11월 노사 기본합의를 작성하고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공공 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 동안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더이상 교섭할 수 없어 교섭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은 처음부터 불성실한 태도로 시간 끌기에만 치중했다”며 “원활한 본교섭을 위한 실무교섭이라도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번 교섭을 무산시키는 사측을 더는

협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의미 없는 임·단협을 중단하고 전폭적 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동균 민주버스본부 사무국장은 “조정이 결렬되면 내부 회의를 거쳐 3월 중순경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민주노조 인정보고 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2010년 12월 8일부터 146일간 총파업을 진행했고 이후 산발적인 노조 파업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10일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의 노사가 노사기본합의를 작성하면서 준법투쟁을 끝내고 3개월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정읍 단속굿춤 당산제. 음력 2월 초하루인 22일 정읍시 북면 원오리마을 주민들이 '단속굿춤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단속굿춤은 주인의 딸을 사모하다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충귀 머슴의 넋을 달래고자 아낙네들이 숙옷을 머리에 쓰고 바지통에 팔을 넣고 춤을 추는 해원(解冤)굿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부안군 퇴역군함 방치 수익 날렸다

테마파크 조성위해 들어 왔다 6년 허송... 결국 반납 리모델링 등 예식장 운영 졸속 추진 험세 25억 손실. 부안군이 민선 4기에 '관광 해양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무상대여했던 퇴역 군함을 장기간 방치해오다 이를 뒤늦게 반납해 수십억원의 험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은 퇴역함에 대한 연차적 군 재정예산 확보 계획과 함께 합정 내부부 리모델링한 뒤 예식장 등의 운영방안까지 추진한다 반납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은 격포항 활성화와 관광객들의 색다른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 해군으로부터 퇴역군함 '북한함'(LST-4000급)을 무상대여해 진해항에서 격포항으로 옮겼다. 또 육군과 공군으로부터 전투기와 탱크, 장갑차 등을 임대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

주인 장모(41·여)씨는 “부안군은 처음부터 홍보를 전혀 하지않은 상태에서 '전 단체장 차적 지우기'에 만 열을 올리며 함상 테마파크를 철거해 상가(횃집) 설치 쪽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오세웅 군의원은 “지난 2010년 군정 질문에서 순수군비 20억원이 투자된 이후에도 다기능 계류장인 봉화산 쪽 조망권을 해치고, 함정 역시 노후돼 유지관리비만 연간 1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당초 함정 내부에 컨벤션센터, 외부에 선상카페를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30억원 정도의 시설예산이 필요했다”며 “이를 연차적 계획안을 세웠지만 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돼 반납 결정안에 따라 다시 진해항으로 이동시킨 후 해군 군수기지사령부와 반납·인계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전북 해안선 592.94km

국립 해양조사원 육지·섬 지역 총길이 측정. 전북지역 육지부와 섬지역을 합한 해안선 길이가 총 592.94km로 밝혀졌다. 국립 해양조사원(원장 임주빈)은 “2011년 전북도 해안선 조사 결과 육지부 해안선 252.34km, 도서부 해안선 340.60km 등 총 592.94km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육지부 해안선의 경우 자연 해안선 72.18km(28.6%), 인공 해안선 180.16km(71.4%)이며, 도서부 해안선의 경우 자연 해안선 268.40km(78.8%), 인공 해안선 72.21km(21.2%)로 밝혀졌다. 전북지역 도서부에 대한 정확

한 해안선 조사는 이번이 처음 실시된 것이다. 국립 해양조사원은 앞으로 도서부 해안선 길이를 기존 통계인 266.04km 대신 340.60km를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안선은 국가 기본 지리정보로 국립 해양조사원에서 2001년 조사를 시작해 2010년에 육지부 해안선 조사를 완료했다. 도서부 해안선 조사는 2014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2012년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남도에 대해 실시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 단신

### 익산시, 여행사 3곳과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익산시는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우수 여행사 3개사와 지난 21일 익산시청 홍보관에서 상호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주)롯데관광개발, (주)홍익관광복지재단, (합)풍경이는 여행과 3월부터 수학여행단 및 숙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여행사는 서울과 경기권에 익산 문화알림이 셔틀버스를 운영해 '세계유산 미리보기', '전통시장 장보기', '보석 박물관 및 농촌마을 체험하기', '4색종교 순례길 탐방' 등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을 제안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남원시, 지역내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 조사

남원시는 지역내 주차장 수급 실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확보를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로 오는 5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는 소재지, 규모, 요금, 운영과 관리실태 등 주차시설 현황

조사와 주차 및 야간에 걸쳐 도로상에 주차돼 있는 모든 차량의 주차위치, 차종, 적법·불법 여부 등 주차이용실태로 구분해 실시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설치와 관리 등 주차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반영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김제시 활육수수 새 소득 작목으로 부상

김제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활육수수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며 새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는 “활육수수 재배 예상면적이 80ha로 5년전(10.3ha)에 비해 8배가 증가했고, 농가소득

도 6억원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품질 좋은 활육수수 생산을 위해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정부 보급품 미혹찰 등 3개 품종 774kg을 보급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 정읍시, 1960~2011년 통계연보 전자책 구축

정읍시는 22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1960~2011년 발간된 모든 통계연보를 전자책으로 구축한다. 전자책(e-book)은 문자나 화상 정보를 전자매체 기록, 책처럼 이용하는 디지털도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시는 총 64권(정읍군 34권, 정주시 13권, 정읍시 17권)을 PDF 형식으로 5월까지 구축한다. 통계는 시 홈페이지 통계연보(jeongeup.go.kr/etc/stat/tong/)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